

## 서문

『세계정치』 이번 호는 부상하는 강대국, 중국을 다룬다. 최근 20여년간 이룩한 경제적 급성장과 그에 따른 정치적 부상의 결과, 중국은 지대한 학문적,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제 미국과 나란히 기존 세계질서를 좌우할 국가로 거론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 중국의 입지와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중국의 부상’이 가지는 국제정치적 함의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들이 축적되었다. 그러나 화려한 조명을 받는 성공의 이면에는 어떤 한계나 단서가 존재하는지, 잠재적인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밝히고 그 국내정치적 근원을 분석함으로써, ‘부상’의 다면성을 보여주는 작업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본서는 몇 가지 핵심 이슈영역들을 중심으로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국내정치 및 경제적인 도전들을 분석하고, 이들이 중국의 부상에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 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서는 중국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정치, 경제, 군사적 문제들을 6개의 핵심 이슈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경제체제와 경제개혁(금융시스템), 대외경제정책과 경제협력(일대일로), 군사력과 군사안보(군개혁), 대중시위와 정치변동(환경문제), 정보통제와 정치안정성(인터넷), 그리고 자원안보와 무기화(희토류)의 이슈가 그것이다. 각 장은 개별 이슈영역에 있어 중국이 직면한 직접적이거나 잠재적인 도전들을 분석하기 위해 구체적인 부

문이나 정책사례에 집중하며, 현재의 문제상황과 그 근원을 밝히고, 공산당 정권의 대응 또는 대안을 살펴보며, 예측되는 성과의 함의를 논한다. 특히 다양한 영역과 사례들을 통해 독자들이 중국의 국내정치경제적 상황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제고할 수 있도록, 좁고 깊은 학문적 분석에 집중하기보다는 각 이슈영역에 대한 개괄적 설명을 제공하고 공통의 질문에 대한 거시적 함의로 연결하는 데 힘을 쏟았다.

각 장의 결론은 상이하며, 낙관론과 비관론 사이의 넓은 스펙트럼에 위치해 있다. 군사안보와 정보통제 영역을 다루는 저자들은 비교적 낙관적이다.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바와 같이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에 비해 열세에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군개혁이 장래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거나(3장), 흔히 권위주의 정권에 도전하는 대중동원을 촉발하는 변수로 거론되는 정보통신혁명의 정치적 함의에 대해서도, 오히려 공산당의 효과적인 통제와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는 결론을 내린다(5장). 다만, 환경문제와 같은 비정치적 영역에서 대중시위가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이 동원과 확산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4장)는 분석은 이와 상반되는 결론도 가능함을 시사한다. 하지만 4장 또한 시민참여의 확산이 정치변동을 가져올 가능성은 아직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어, 3, 4, 5장은 모두 중국 정치체제의 취약성, 특히 물리적 통제력의 약화나 민주화 등 정치변동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회의적인 관점을 공유하고 있다.

가장 비관적인 예측은 경제영역에서 등장한다. 특히 후진적

인 관치금융시스템이야말로 중국경제가 가지는 구조적인 약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개혁의 수준에 비해 현실의 변화는 아직 미비하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를 자아낸다(1장). ‘일대일로’로 대변되는 중국의 야심찬 대외경제투자 및 협력 정책도, 공격적인 경제력 확산책이기 이전에, 실은 국내산업의 생산과잉과 자원부족 등의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며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중국경제의 취약성을 드러낸다(2장). 실제로 희토류와 같은 중요한 전략자원에 대한 통제력 부족을 보여주는 분석은, 중국이 주요 경제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의도한 결과를 내는 능력이 미비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6장). 즉 1, 2, 6장의 저자들은 경제영역에 있어 중국 공산당 정권의 정책결과에 대한 통제력이 일반적인 기대보다 약하며, 예측 가능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개혁성과 또한 미비하고, 국내정치 경제적인 원인으로 인해 근본적인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공통적으로 취약성과 불안정성을 부각하고 있다.

본서의 구성과 각 장의 논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본서의 전반부는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경제 및 군사 안보 영역에 집중한다. 첫 세 장은 각각 국내경제(1장), 국제경제(2장), 군사안보(3장)와 관련한 핵심적인 정책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후반부 세 개의 장은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 이슈영역, 즉 환경문제와 대중시위(4장), 정보혁명과 인터넷 통제(5장), 그리고 자원안보(6장)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먼저 1장 ‘중국의 경제체제: 관치금융시스템의 후진성과 취약성’은 경제개혁이 시작된 이래 시진핑 정권에 이르기까지 중국 경

제정책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산업정책을 보조하기 위해 금융억압을 추진한 관치금융의 결과로 만들어진 비효율적이고 후진적인 금융시스템이 중국 경제체제의 결정적인 취약점을 보여준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신용공급 확대는 국유기업의 부채누적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을 심화시켰다. 저자는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유기업개혁과 금융자유화 등의 민감한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진핑 정권의 경제개혁은 정치적 딜레마에 처해 있으며 개혁의 결과도 미온적일 수 있다고 본다.

2장 ‘중국의 대외협력: 일대일로 정책의 국내 정치경제적 근원과 취약성’은 시진핑 정권의 대표적인 대외경제협력 전략인 일대일로 정책의 근원에 집중한다. 저자는 일대일로 정책이 지역 간 불균형 성장, 산업의 공급과잉, 에너지 자원의 부족, 신기술산업 육성의 필요성 등 중국의 국내정치경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에너지 확보를 제외한 다른 목적들은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 달성이 어렵다는 점에서, 중국이 가진 정치경제적 취약성을 보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저자는 일대일로라는 국가대전략을 통해 중국의 국가역량이 향상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유보적이지만 회의적인 평가를 내린다.

3장 ‘중국의 군사안보: 시진핑 시기 중국군 개혁의 평가와 합의’는 시진핑 정권이 “중국몽”의 기치 아래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방 및 군 개혁을 다룬다. 이 장은 당영도 확립 및 지휘체계 효율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국방 및 군 개혁정책들을 리뷰하며, 그 성과와 과제를 분석한다. 저자는 여러 가지 한계와

계약에도 불구하고, 개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극복 가능한 것들이며 군개혁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더불어 중국군의 현대화와 영향력 확대가 향후 더욱 진전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는 미중관계 및 동아시아 안보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될 것이라 주장한다.

4장 ‘중국의 정책과정: 환경이슈와 시민참여의 확산’은 중국의 성공적 발전이 가져온 심각한 부작용인 환경오염 문제에 주목한다.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산업정책의 집행에 반대하며 확산되고 있는 대중시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국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시민참여가 가지는 정치적 함의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저자들은 2007년 이후 10여 년간 중국 전역에서 일어난 파라자일렌 프로젝트 반대시위들을 살펴보고, 샤먼과 닝보의 성공사례들을 분석하면서, 중국의 산업정책 집행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와 집단행동이 가지는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중국 공산당 정권의 정책통제력 약화나 시민사회의 성장 등을 암시하는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결론을 내린다.

5장 ‘중국의 정보혁명: 모바일 인터넷 통제와 정치 안정성’은 최근의 정보통신혁명이 과연 중국 공산당 정권의 사회 통제력을 약화시키고 대중 참여에 의한 정치변화를 촉진할 수 있을지 묻는다. 이 장은 시진핑 정권하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한 모바일 인터넷에 집중하여, 인터넷 통제의 다양한 방식과 전략을 소개하고 통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분석한다. 저자는 모바일 인터넷의 발전이 플랫폼을 이용한 통제의 용이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에게 대중소통과 여론조작의 통로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인터넷

통제 패러다임 구축이 가능해졌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정권은 인터넷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동시에 이용하고 있기에, 정보혁명은 정치적 약점이 되기보다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서의 마지막 장인 '중국의 자원무기화: 희토류 패권의 취약성'은 중국의 경제발전과 함께 중요한 전략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자원안보를 다룬다. 일반적으로 자원안보는 중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충분한 자원을 적절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문제이지만, 이 장은 중국이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희토류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아, 중국이 전략자원의 해외 유출을 막아 고갈을 방지하는 동시에 대외정책적 무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논한다. 저자는 높은 상호무역의존도와 파편화된 중국 희토류 산업의 내부모순으로 인해, 중국의 자원정책이 '위협'이 되기보다는 주요 전략자원에 대한 통제력 미비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중국 자원안보의 취약성을 시사한다고 주장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편집본의 저자들은 분석영역에 따라 다양한 의견과 관측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합의는 존재한다. 첫째, 부상하는 강대국인 중국의 '파워(power)'를 분석함에 있어서, 단순히 하나의 측면이나 영역에만 집중해서는 종합적인 이해가 어렵다는 점이다. 중요한 이슈영역들을 분할하고, 각 영역에서 핵심적인 문제가 야기된 국내정치경제적 근원을 파악하며, 근본적인 원인의 해결 가능성을 분석해볼 때, 파워의 다면성과 영역 간 비대칭성을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이러한 다면적 접근을 시도한다면, 중국의 국제정치경제적 영향력의 지속가능

성을 단순히 낙관할 수는 없다. 중국이 이룩한 정치적, 경제적 부상의 이면에는 강화되고 있는 통제력과 의외의 취약성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셋째, 부상하는 중국의 ‘약한 고리’는 국내경제구조에 있다. 급속한 경제 성장에 기반해 확장된 중국의 파워는, 역설적이게도 국내경제의 구조적 문제들로 인해 정치 및 군사적 통제력의 건재에도 불구하고 불안정성을 내재하고 있다. 경제적인 위기나 충격은 곧 정치적 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그 파장과 함의가 크다.

본서의 작업은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SSK)의 지원하에 이루어졌다(이 저서는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3A-2046903). 긴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집필회의에 기꺼이 참여해주시고 옥고를 만들어주신 필진에 깊이 감사드린다. 완성도 높은 편집본의 출간을 위해 애써주신 사회평론아카데미 편집팀과 국제문제연구소 간사들, 그리고 본서의 구상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조언과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신옥희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정주연